

ECONOMICS NEWSLETTER 제37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 발행인 : 류근관 / 편집인 : 이지홍 / 편집조교 : 고중산 / 발행일 : 2017년 8월

학부장 인사말씀



류근관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무역학과, 국제경제학과 및 경제학부 동문 선·후배 여러분, 그리고 경제학부 재학생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학부장 및 경제연구소장으로 지난 6개월간의 학부와 연구소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7일에는 경제학부 주관으로 20년 전 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홀연히 떠난 고 김태성 교수의 20주기 기념 학술대회가 거행되었습니다.

고인의 제자이자 현 학부 교수인 김진우 교수와 주병기 교수가 행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고인은 만 40세도 되기 전 세상을 하직했지만 고인의 연구 업적과 후학을 키우던 열정은 아직도 우리 학부는 물론 경제학계 구석구석에 살아 남아 있습니다. 학부에서는 고인의 유족이 기부한 5억여원의 기금으로 학술행사 및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5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아시아를 대표하는 5개 기관, 즉 중국 북경대, 일본 교토대, 대만 Academia Sinica, 싱가포르 난양공대와 한국 서울대 등의 경제연구소가 참여하는 AEI-Five (다섯 개의 Asia Economic Institute) 국제 학술대회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려 경제학계의 주요 이슈와 아시아의 경제문제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경제연구소 발간부장인 최승주 교수와 연구부장인 홍재화 교수가 회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학기말인 6월 12일에는 제1회 서울대 경제정책 포럼 행사가 경제연구소와 경제학부 주최로 열렸습니다. 그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와 경제연구소가 학문적 수월성을 지향한 나머지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해서는 다소 침묵했다는 학내외적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는 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일 년에 두어 차례씩 국내외의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해 포럼의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여 금번 제1회 서울대 경제정책 포럼을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학부와 경제연구소 소속 김세직, 김소영, 박지형 세 명의 교수가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하락 추세, 금융의 글로벌화,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직면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분야별 최고 정책 전문가인 조운제 서강대 교수, 이일형 금융통화운영위원, 이인호 통상산업부 차관이 발표자 및 류근관 서울대 교수와 함께 종합토론을 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경제학부나 경제연구소의 공식 견해는 아닙니다만 동문과 학부모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요약본 형태로 이 소식지에 게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 인사와 관련해서는 경제학부에는 네 명의 외국인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데 현재 다섯 번째 외국인 교수를 특별 채용하고자 최상의 후보를 탐색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975년 서울대학교가 관악으로 이전하면서 서울 상대는 경제학부와 경영대학으로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상대 동창회에서 끊임없이 물심양면으로 경제학부와 경영대학을 지원해주신데 대해 경제학부장으로서 그리고 동문의 일원으로서 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내년 봄 경제학부와 경영대학 재학생들에게 서울 상대의 전통과 뿌리를 느끼게 하는 작은 계기를 만들고자 서울 상대 동창회 주관으로 경제학부와 경영대학이 공동의 체육대회 행사를 갖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와 경영대학에는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가 폐지된 이후 신설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도 전공으로 경제학과 경영학을 주로 선택합니다. 학부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이전의 서울 상대가 이전의 서울 법대를 흡수 합병한 셈입니다.

동문인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의 100억원 기부로 시작된 우석경제관 신축 사업은 현재 설계 및 학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상태에서 서울시 및 관악구의 건축허가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부에서는 시와 구의 행정 절차가 종료되는대로 우석경제관의 착공이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금년 10월 중으로 착공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대 경제학부는 우석경제관에 이어 제2경제관 건립을 위해 조만간 최종 확정되는 서울대학교 캠퍼스 마스터플랜에 제2경제관 건축 부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석경제관과 함께 제2경제관이 완성되면 이는 경제학 연구의 국제화, 경제학 교육의 내실화, 그리고 연구와 교육의 선순환을 위한 물적 토대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터전 위에서 경제학부는 인류에 공헌하는 연구 성과물을 내고 인류 발전에 기여할 세계 최고의 인재를 길러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부와 경제연구소의 변화되는 모습에 동문, 학부모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학부장 류 근 관 드림

경제학부 학술행사

제1회 서울대 경제정책 포럼



‘제1회 경제정책 포럼’ 개최식 모습

2017년 6월 12일, 서울대 경제학부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제1회 서울대 경제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김세직 교수, 김소영 교수, 박지형 교수의 발표 요약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1. 거시경제: 구조적 위기와 최적정책대응



김세직 교수

〈한국 거시경제 진단〉

거시경제 펀더멘탈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인 ‘장기성장률’과 ‘투자율’ 추이를 갖고 진단해 볼 때, 한국경제는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장기성장률이 정권에 관계없이 5년마다 1%씩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성장위기’에 이미 15년 이상 빠져 있었고, 점점 더 깊어가는 청년실업/일자리 문제, 기업 생산성 정체, 부실/부도/한계기업 증가도 결국 성장추락에 따른 잠재적 위기가 현재화되기 시작한 때문이며, 이 추세가 지속되면, 5-6년 내에 0%대의 ‘제로성장’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더해서, 성장률과 투자효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30%대의 높은 투자율이 15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이에 따라 ‘과잉투자’ 및 가계와 기업의 ‘과잉차입’이 상당한 수준으로 누적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금융위기 압력’도 계속 증가해 왔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과잉투자의 원인이 ‘거시정책 실패’ 특히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과도한 건설경기 부양, 저금리 정책 같은 ‘과도한 경기부양정책’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조적 위기 대응정책〉

첫째, 깊어지는 거시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 개혁하는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거시정책 방향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성장 추락 저지에 실패하고 과잉투자 부작용만 증가시켰음에도 과도한 대중요법적 단기경기부양이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사실은 경제정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정책처방이 충분한 객관적 과학/연구에 입각하기 보다는 일부 정치권/관료/재벌 등의 정치적 이해나 집단적 이익에 의존해 왔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경제정책 시스템의 새로운 구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제정책 R&D 투자를 통한, 학계 순수학자들의 정책 연구 참여 적극적 유도 및 이를 통한 경제정책의 과학적 입안 시스템과 사후적 검증 시스템 도입 및 이를 토대로 한 최적 구조개혁의 로드맵을 설계할 필요성이 큼니다.

구조개혁은 구조적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경제 성장동력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모방형 인적자본과 물질자본의 동시 축적을 성장동력으로 한 지속적 성장 달성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프론티어에 접근하는 90년대부터 창조형 인적자본과 이에 따른 기술진보로 성장동력 구조를 전환해야 했음에도, 우리 경제는 지난 20년 넘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의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성장동력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창의성 구조개혁’이 시급합니다.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한 학교/직장에서의 교육개혁과 사회전반에 걸친 창의성 촉진 법제도/문화 개혁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경쟁 구조개

혁’ 역시 시급합니다. 공정한 경쟁체제 회복을 위한 기업/기업가 선발(자원배분) 경쟁 개혁, 입시제도 개혁 등이 필요합니다. 경쟁개혁의 핵심은 공정경쟁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경쟁자 pool을 늘리고, 이에 따라 보다 능력 있는 기업가, 지도자, 인적자원을 선발하고, 이를 통해 나라 전체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2. 금융 글로벌화와 한국의 대응



김소영 교수

지난 20-30년간 세계적으로 국제 금융 관계가 급증해왔다. 한국도 이러한 세계적인 금융 글로벌화 추세를 따라 외국과의 자산거래, 금융거래가 급증하였다. 국제 자본의 유출입이 급증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의 대외자산과 대외부채의 총량도 각각 GDP 대비 90%, 70% 정도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외자산, 대외부채의 구성은 한국경제에 중요한 함의를 가지게 되었다.

(대외 부채에 비해) 수익률이 높고 자본 이득이 큰 대외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외국으로부터 부(wealth)와 순소득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반면, 수익률이 낮고 자본 이득이 낮은 대외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외국에 부(wealth)와 소득을 지급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대외자산, 대외부채의 가치변화에 따른 자산효과(valuation effect)는 연평균 GDP 대비 -2.1%였고 -10% 이상에 달했던 해도 있다. 투자소득 수지도 지난 20년간 연평균 -0.3%였다. 즉,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자산, 대외부채의 가치 변화와 이자, 배당 등으로 인해 한국은 매년 GDP -2.4%에 달하는 부(wealth)를 외국에 (순)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한국경제의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미국 재정증권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외환보유액과 같은 수익률이 낮고 자본 이득이 낮은 자산을 많이 보유한 반면 외국인인 한국의 보다 수익률이 높고 자본 이득이 큰 증권투자를 한 결과이다.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대외부채 대비 대외자산 구성에 대한 전략적 마인드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익률이 높고 가치 상승분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외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증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포트폴리오 투자 부분에 대한 수익성 증대가 필요하다.

금융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환율이 대외자산, 대외부채의 가치변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환율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기 위해 대외자산, 부채를 구성하는 통화별 가중치를 사용한 금융실효 환율을 구축하여 (기존의 무역가중치를 사용한 실효환율대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금융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미국과의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통화 정책이 장기금리를 통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되는 반면 통화정책이 환율의 변화를 통해 대외 자산 및 부채의 가치가 변화하는 효과는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왔던 급격한 자본 유출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에 문제가 되어왔던 은행차입은 약간 줄어드는 추세이나 포트폴리오 자본 유입이 급증하였다. 향후 급격한 자본 유출과 관련하여 포트폴리오 부분의 자본 유출을 모니터링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대미 흑자와 관련된 환율 조작국 이슈와 관련해서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에서의 지나친 매수개입을 자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환율 하락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매수개입 대신 대외투자 활성화로 대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대미 흑자는 국제통화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한 달러유동성 위기 가능성을 줄이려고 외환보유액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외환보유액을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확대나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자본 통제 등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고려해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제통화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3. 신보호주의의 등장과 세계무역체제: 한국의 대응



박시형 교수

본 발표는 세계무역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신보호주의의 등장과 그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을 논한다. 신보호주의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보호무역주의를 의미하며, 이는 최근 브렉시트와 극단적 보호무역정책을 표방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당선을 통해 확인해지고 있다. 신보호주의의 등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온 선진국의 중산층 붕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선진국 중산층의 붕괴는 중국 등 개도국들의 값싼 노동력에 근거한 수출확대와 기술편향적 과학기술발전이 모두 선진국 제조업 노동자 고용문제를 악화시킨 것이 주원인이다. 선거경쟁모형에 의하면 선진국 중간선거권자(median voter)는 본래문제의 악화에 대응하여 그 원인에 상관없이 더 강한 보호무역정책을 선호하게 된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제조업 노동자들 뿐 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보호주의는 당분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안정적인 세계무역체제의 유지·발전이 매우 중요한 한국은 이러한 신보호주의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본 발표는 이에 대하여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적 대응책을 논한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국내정치적 득실에 따라 중요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결정 방식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FTA의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재협상 전략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선거에 결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시건, 오하이오,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에 대해 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협상에 임하는 것이 필요

하다. 중·소기업들의 FTA 특혜관세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원산지 규정을 재조정하는 것, 그리고 한미 FTA의 투자관련 부분도 미국의 대 한국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에서 오는 시장의 실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협상하는 것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둘째, 중기적으로는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일본이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타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RCEP은 신보호주의가 신흥국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Mega FTA란 점에서 중요한 협정이며 신속한 타결이 요구된다. 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한국경제의 경우 현재 중첩된 FTA로 인한 매우 복잡한 역내 원산지 규정을 조정하여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 대응책으로 WTO체제를 강화할 새로운 다자간 협상으로서 서울 라운드(Seoul Round)의 추진을 제안한다. GATT·WTO의 기존 협상 라운드들은 미국과 EU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도하 라운드의 실패에서 보듯 세계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신흥국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다자간 협상은 성공하기 어려워졌다. 서울 라운드를 통하여 한국과 G20 신흥9개국(중국, 인도,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아르헨티나, 남아공, 러시아)들이 협정관세를 절반수준으로 줄이는 경우 그 경제적 파급력은 미국과 EU가 협정관세를 절반수준으로 줄이는 것에 비교하여 훨씬 클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 라운드를 통해 비관세장벽 남용의 제한과 관련한 WTO의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 매우 큰 가치를 지닌다. 선진국들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신흥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의 확대란 차원에서 서울 라운드 추진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서울 라운드는 신보호주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G20 신흥국들과 함께 서울 라운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국가 이미지 상승 등이 가져올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도 매우 클 것이다.

김태성 20주기 기념 학술대회 (T.S. Kim Bidecennial Memorial Workshop)



김태성 20주기 기념 학술대회 개최식 모습

2017년 3월 17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세미나실에서 '김태성 20주기 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故 김태성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한 후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캘리포니아공대 조교수를 거쳐 본

교 교수로 부임했다. 그러나 부임 후에 활발하게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던 중 1997년 4월 돌연히 사망함으로써 큰 안타까움을 남겼다.

경제학부는故 김태성 교수의 유족이 희사한 기금으로 김태성 추모강연, 김태성 논문장학금, 김태성 기념논문상을 마련하여 그의 뜻을 기리고 있다. 특히 1999년 이래로 매년 '김태성 추모강연 (T. S. Kim Memorial Lecture)'을 개최하여 5회의 추모강연을 가진 바 있다. 2004년 9월부터는 이를 '김태성 기념세미나 (T. S. Kim Memorial Seminar)'로 변경하여 국내외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모시고 매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에 개최된 20주기 기념 학술대회는 이와 맥을 같이한다.

동아시아 지역 경제연구소 국제학술대회 (AEI-Five Joint Conference)



동아시아 지역 경제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진행 모습



대학원생들의 연구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는 모습

2017년 5월 29일, 30일에 걸쳐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의 주관으로 서울대, 중국 북경대, 싱가포르 난양공대, 대만 중앙연구원, 일본 교토대가 참가한 '동아시아지역 경제연구소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포스터 세션이 진행되어 대학원생들이 포스터를 통해 자신들의 연구를 소개하고, 학술대회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교수수상 및 동정

이근 교수, 제1회 한국경제학술상 수상



이근 교수가 제1회 한국경제학술상 범 미시 분야 수상자로 선정되어, 2017년 2월 9일 서강대학교 정하상관에서 이 상을 수상하였다. 한국경제학회는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한 경제학 연구의 학문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한국경제에 대한 경제학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이 상을 제정하였다. 시상 분야는 범 미시와 범 거시 분야로 나뉘며 매년 시상이 이루어진다.

이상승 교수, 홍조근정훈장 수상



이상승 교수가 2017년 3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6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상승 교수는 이기종 숙명여대 교수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과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았다. 이날 열린 공정거래의 날은 민간 자율에 의한 공정거래법 준수 및 경쟁 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올해 16회째를 맞이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제42회 월봉저작상 수상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월봉 한기악 선생 기념사업회(회장 이문원)에서 수여하는 제42회 월봉저작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2017년 4월 1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이 상을 수상하였다. 월봉저작상은 일제강점기 언론인과 교육자로 민족운동에 헌신한 월봉 한기악(1898~1941)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한국의 학문 발전과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학자에게 주어진다. 수상 저서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지난 12월에 펴낸 '한국경제사I-한국인의 역사적 전개'다.

이정민 교수, 홍석철 교수 경제학부 부학부장 겸보



이정민 교수



홍석철 교수

지난 2년간 교무부학부장과 학생부학부장을 역임했던 김소영, 조상진 교수에 이어, 2017년 9월 1일부터 향후 2년간 이정민, 홍석철 교수가 각각 교무부학부장과 학생부학부장을 겸보한다.

교수신규 임용



2017년 3월에 드미트리 샤피로(DMITRY SHAPIRO) 교수가 경제학부에 새로 부임하였다. 드미트리 샤피로 교수는 응용미시이론 분야 전공자로 2006년에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7학년도 1학기에는 미시경제학특수연구를 강의하였고, 2학기에는 고급경제이론 연구(정보경제학)를 강의할 계획이다.

발전기금 모금 안내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을 희망하시는 동문께서는 다음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농협 079-17-000136

예금주: 서울대 발전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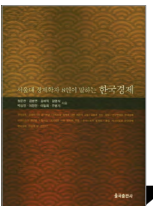
용도지정: 경제학부

입금하신 뒤 하단의 전화번호로 경제학부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학부 발전기금 담당자: 경제학부 강내영 행정실장
전화: 02-880-6361, E-mail: kang97@snu.ac.kr

교수 신간 안내

서울대 경제학자 8인이 말하는 한국경제



정운찬, 김병연, 김세직, 김영식, 박상인, 이정민, 이철희, 주병기 지음
윙크출판사(2017년 2월 28일 출간)

이 책은 8명의 저자가 각 장을 맡아 서술한 형태이다. 1장은 김세직 교수가 맡아 '한국경제: 금융위기와 경기부양'에 관해 서술하고, 2장은 박상인 교수가 맡아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이야기 한다. 3장은 김영식 교수가 맡아 '금융과 성장·분배'에 관하여, 4장은 이철희 교수가 맡아 '인구 변화와 한국경제'에 대해, 5장은 이정민 교수가 맡아 '우리나라의 청년층 노동시장: 2000년 이후 변화와 전망'에 관해 논하고 있다. 6장의 주제인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주병기 교수가, 7장의 주제인 '통일 시나리오와 한국경제'는 김병연 교수가, 마지막으로 8장의 주제인 '한국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운찬 교수가 서술하였다.

정보의 역할을 고려한 거시경제모형



윙크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7년 6월 20일 출간)

이 책은 의사결정자들의 정보수집이 불완전한 상황을 고려한 거시경제모형을 소개하고 풀이한다. 최근 합리적 부주의 이론에서는 정보처리 능력의 유한한 의사결정자들이 자신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업데이트 하는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이 보유한 정보의 질과 양을 스스로 결정하는 상황을 거시경제모형에 도입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이 책은 그러한 최근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거시경제모형을 소개하기 위해 저술되었으며, 의사결정자들의 정보수집이 불완전한 상황을 고려한 거시경제모형 중에서도 최근의 합리적 부주의 모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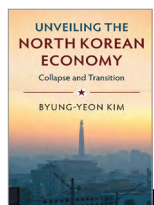
설득의 경제학 - 거시경제학적 접근



윙크 지음
박영사(2017년 6월 10일 출간)

이 책은 2017년 2월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의 특별세션인 'DSGE 모형과 시사점'에서 저자가 발표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책의 목표는 거시경제적 설득의 중요성과 실효성을 분석하는 최근의 이론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거시경제적 설득은 가계와 기업의 소비심리 및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행위, 그리고 재정정책 또는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기대 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정책적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



김병연 지음
Cambridge University Press(2017년 5월 27일 출간)

먼저 이 책은 저자가 2010년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로 선정되어 집필한 연구 성과이다.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1부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2부는 북한 경제의 과거와 현재의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3부는 북한 경제의 체제이행과 남북통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북한 경제를 분석함에 있어 김병연 교수는 북한 거시경제 데이터를 재구성하여 장기 경제성장률과 일인당 소득을 추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북한이탈주민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시장화 현상을 분석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북·중 무역을 미시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북한 경제에 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 저서가 거의 없는 가운데 이 책은 이 분야에 관한 가장 포괄적이며 엄밀한 연구 성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북한 경제를 다루면서 세계 유수대학 출판사에서 출간한 영문도서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 책은 북한 경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심 있는 연구자나 정책결정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저서로 판단된다.



드미트리 사피로 교수

Before I met my wife, all I knew about Korea were just some little bits of information here and there, Ji-sung Park, 'the Man with Two Hearts' of Manchester United, rapid economic growth, many internationally renowned universities including SNU, that the country is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as a result of Cold War, a couple of Korean dramas that I randomly watched, and that was about it. Even after I met my wife who is Korean, I could not expect that six years later I will be living and working in Seoul, enjoying So-Gal-bi barbecue and teaching SNU students. I'm quite enjoying my new life here and all the new things I meet in Seoul and SNU campus. Some things were difficult to deal with like micro-dust problem or going through all the formalities needed to settle down in a new country. But thanks to help from my wife, my colleagues and the department the paperwork is in the past; and thanks to changed winds so is microdust.

I started studying Korean language. I found Korean language interesting when I got to know the Korean alphabet has a scientific structure (initial-middle-end sound consist one character) that represents how a character sounds, and that each character that forms a word have their own independent meanings based on Chinese characters.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Korean alphabet was touching. I was moved by kindness of King Sejong, feeling sorry his people suffering from illiteracy of Chinese character, designed new character system. It will take some time for me to speak in Korean naturally but I hope I can communicate in Korean with professors and students of SNU within few years at least at a basic level. I'd love to learn Korean daily expressions, so I'll be happy if you teach me some useful one when you visit my office.

My major in undergraduate is Mathematics. When I was an undergraduate

student, after taking some Mathematics courses, I wanted to learn more realistic things about the real world. Then, one of my friends recommended me to take economics class saying Economics has a quite similar logical process with math in a sense of deriving the conclusion based on assumptions, so I took 'Introduction to Economics' class first. In that course, I was impressed by the intuition of Adam Smith, that the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itself can achieve an ideal outcome for whole society, as a result of each member of society pursuing their own interest. It is quite clear and straightforward that each individual should do what's best for himself, and so if some good is scarce and then its price has to be high in order to satisfy the conflict between demand and supply. But that it implies that the market equilibrium is magically efficient (some people call it Pareto efficient) was surprising. It was a long jump from the premises to the result, which as a mathematician I found fascinating.

At the same time, however, it was clear to me that equilibrium while being efficient does not mean that it is fair. Later, like in Welfare Economics class, I was happy to learn that economists already considered concepts related to justice and equity. One inspiring example that I still remember was how Alfred Marshall became an economist, wanted to be a scholar seeking better society. He decided to be an economist after looking a poor urban area in England, thinking, "How can those people live in this poverty in England, one of the richest country?" and established the first Economics department in Cambridge University. My first impression about the Economics was efficiency-oriented, but later, I learned that the first step of Economics was 'Warm heart'.

But, as you all may know, it's easy to be lost on the way to that kind of goals while studying Economics because as you move towards more advanced Economics courses, students learn many different concepts, complicated models and methods to explain and analyze the economic phenomena. Some areas quickly get too abstract for a discipline that is supposed to be applied. That's why I think it's essential to keep reminding oneself his/her goal or destination especially for students who study Economics, whatever his/her goal is,

I was so captured by game theory after taking the first course on the subject. First, it appealed to my mathematical background, as it was all based on assumptions, axioms, propositions, theorems. You always knew how you got a particular result and what stays behind it. On top of that game theory was very good at providing intuition behind its concepts, something that mathematicians don't do. Even for counter-intuitive concepts, such as mixed Nash Equilibria (yes, it is counter-intuitive when you meet it for the first time) the intuition was very compelling.

This fascination with Game Theory is why I ended up doing Microeconomic Theory. But I did not go for pure theory. I do like some touch of reality, which is why Behavioral Economics immediately captivated me. When I was a PhD student it was still a young field that was often frowned upon. And sometimes for good reasons because young fields tend to be somewhat undisciplined. However, social psychology findings of the seventies already found their way into axioms, mathematical formulas, and new equilibrium concepts. So I could join the Behavioral Economics team, knowing that even if my paper is theoretical its assumptions are based on human behavior and is, therefore, than a pure abstraction.

Last thing I want to mention is to remember to enjoy your life! When I heard how Korean high school students work hard to go to their wanna-go universities, I felt sorry and worried at the same time. And almost all students in SNU, must have studied hard from early morning to late in night every day to achieve their dream, but that might cause lack of exercise and relax. I recommend you to do at least one activity or exercise like tracking, swimming, Taekwondo or yoga. Start with anything you find interesting, and make it as your habit. That will change your whole life.

Academic and professional career

- Associate Professor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Present
- Associate Professor of Economic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rlotte, 2012–2016
- Assistant Professor of Economic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rlotte, 2006–2012
- Ph.D. in Economics, Yale University, 2006

나는 경제학부 동창과 결혼했다.



유혜미 (96학번,
현 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 경제학과 조교수)

내가 서울대 경제학부에 입학하던 1996년, 근래 가장 많은 여학생이 입학한 해였다지만 학부 정원 216명 중 여학생은 겨우 20명이었다. 지금은 경제학부 내의 여학생 비율이 많이 높아져 절반에 가깝다고 하니 자연스레 학과 내에서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을 테다. 물론 졸업 후 다양한 진로가 열려 있으니 경제학부 내에서 교제를 시작한 커플이 결혼에 이르더라도 같은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자 혹은 경제학 교수 부부의 삶이 궁금한 분이 있을까 하여 나의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나는 서울대 경제학부 96학번 동창과 결혼했다. 우리는 같은 과, 같은 학회 동기일 뿐 아니라 둘 다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동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현재 각기 다른 미국 주립대의 경제학과 교수로 근무 중이다.

주변에서 농담조로 의사나 법조인은 본인보다 배우자나 가족에게 좋은 직업이고 교수는 본인만 좋은 직업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부부가 교수일 경우 본인의 만족을 넘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가 있다. 서로의 일을 잘 이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 궁극적으로 서로의 학문적 생산성에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직의 장점은 시간을 유동적으로 안배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이는 여유시간이 많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답이 쉽사리 나오지 않는 연구주제에 대해 고민을 하다 보면 일과 사생활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일쑤이다. 배우자가 일거리는 일터에서 해결하라고 요청해보면 난감할 수밖에 없다. 우리 부부의 경우 거시경제학이라는 큰 틀에서 비슷한 주제에 대해 연구를 하다 보니 일상생활에서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연구와 관련된 대화를 많이 하게 된다. 이 중 일부는 공동연구로 발전되기도 하는데 연구와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 별도로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건 큰 장점이 된다. 삶의 동반자가 학문적 동지가 되어 서로의 학문적 성과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좋은 예가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서로의 논문을 읽고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다는 점, 강의나 지도학생 관련된 고민을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다는 점,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 승인되거나 거절되었을 때의 기쁨과 좌절을 누구보다 절실히 공감해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리 부부가 감사히 생각하는 점이다. 학부 동창 친구들이 겹치고 연구와 관련해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부부 둘 다와 친분을 쌓게 되는 등 서로에게 투명한 인맥을 공유하게 되는 것도 우리 같은 부부가 아니면 겪기 어려운 경험일 것이다.

더욱이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양육과 가사는 여성의 소임이라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여전한 한국사회에서는 부부가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장점이 더욱 크다. 직업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남다른 만큼 가정을 꾸러가기 위한 기본적 의무를 비교적 공평하고 나누게 된다. 더욱이 우리는 경제학 연구를 업으로 삼는 부부인 만큼 집안 대소사와 자녀양육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토론을 거듭하여 제약조건을 고려한 합리적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연구 관심사가 비슷한 부부 교수의 경우 만만치 않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미국과 같은 넓은 면적의 나라에서 부부가 같은 대학, 아니면 최소한 같은 도시에 위치한 대학에서 자리를 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 내에서 비슷한 연구주제를 연구하는 두 명의 경제학자를 동시에 고용할 수 있을 만큼 큰 규모의 경제학과를 찾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부부 교수는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므로 학과 내 의사결정에 다른 구성원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차선책으로 양질의 연구 중심 대학이 두 곳 이상인 도시를 찾아 자리를 잡는 것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우리 부부도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96학번 동창인 우리 부부는 2006년 뉴욕주 로체스터대학에서 학부 졸업 후 처음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 당시 박사과정 4년을 마쳐가고 있던 나는 군 복무를 마치고 박사과정 1학년으로 유학을 나온 남편과 유학생들의 고단함을 서로 위로하다 결혼에 이르르게 되었다. 다행히 먼저 졸업을 하게 된 내가 로체스터에서 가까운 도시의 대학에 조교수로 가게 되면서 당분간 우리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함께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남편이 박사과정을 마치고 다른 주의 주립대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쉽지 않은 여정이 시작되었다.

우리 부부는 지난 5년간 차로 5시간 가량 떨어져 있는 두 주립대에 적을 두고 있었다. 첫 2년은 남편과 아이들이 남편의 학교가 있는 도시에 살며 내가 매주 두 도시를 통근했고, 다음 3년은 내가 근무하는 학교가 있는 도시로 온 가족이 이사와 남편이 다른 주의 학교로 통근을 했다. 남편의 졸업과 함께 두 아이의 부모가 된 우리에게 주말부부 생활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아이들을 돌보거나 통근을 하느라 연구에 매진할 시간은 부족했지만 우리 부부 모두에게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연구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때마침 한국의 대학교에서 우리 부부의 연구에 관심을 보여주었고 감사하게도 남편과 나는 이번 가을 학기부터 서울에 있는 두 대학에 각각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부부교수로서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부부교수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누리는 일만 남은 셈인가?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동아리 수상 소식

서울대학교 금융경제 연구세미나(SFERS) 소속 윤민수, 손현욱 학생 제7회 동부문화재단 금융제안 공모전 장려상 수상



손현욱(좌측), 윤민수(우측)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모습

2017년 5월 11일, 경제학부 소속 동아리인 서울대학교 금융경제 연구세미나(SFERS)의 윤민수(경제11), 손현욱(경영12) 학생이 동부금융제안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두 학생은 지난 2월, 팀명 SFERS로 공모전에 응모작을 접수하여 약 1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하였고,

독창성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장려상 수상과 글로벌 금융탐방의 성과를 거두었다.

팀 SFERS의 주제는 '우리나라의 문화자산 유동화증권 도입 가능성'이다. 연예인관련 상품, 캐릭터 상품(카카오프렌즈), 웹툰 상품 등 재화에 있어 중독성(addictiveness)에 의한 낮은 가격탄력성을 지니는 자산의 특성에 주목하여, 이를 유동화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채권은 경기비순응적 특징 및 수요의 안정성에 따라 기존 금융상품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은 동부문화재단에서 주최한 공모전으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제7회에 이르는 공모전이다. 공모전의 취지는 대학생들의 '금융에 대한 관심 제고'와 '미래 금융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수상자들에게는 글로벌 금융탐방 및 상금이 제공된다.

영화로 보는 YOLO (You Only Live Once) 그리고 실존주의



박서현 (대학원 17학번)

최근 YOLO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YOLO는 You Only Live Once의 줄인 말로 '인생은 한 번뿐. 후회 없는 오늘을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나 올해 마케팅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좁은 의미로 현재 소비에 중점을 둔 소비 성향을 일컫기도 한다. YOLO족의 등장은 N포 세대의 비관적 담론에 대한 긍정적인 반향으로 해석해 볼 수 있고, 경제학적인 의미를 따진다면 소비성향의 변화나 가구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이행하는 소비단위의 변화로 읽을 수도 있다. 그러나 YOLO의 개념이 소비에 국한되거나, 무절제한 쾌락주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물론적 입장에서, YOLO는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변화되어온 사회 전반의 철학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YOLO는 현대 철학 사조의 실존주의와 맞닿아있다. 실존주의를 이해하기 쉽도록 축약한 글귀가 YOLO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존주의는 인간 존재의 무목적성과 우연성을 전제로 개인의 주체적 존재성을 강조하는 철학이다. 사르트르가 실존주의를 표현한 말로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는 말이 유명하다. 여기서의 본질은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를 의미하는데, 인간은 본질이 존재하기 이전에 실존하며 따라서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YOLO의 유행 그 자체는 구조화된 철학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한층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실존주의의 개념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 YOLO와 관련하여 주목해 볼만한 실존주의의 키워드는 주체성(주관성)이다. 주체성을 간단히 풀어쓰면 주관적 판단에 의거하여 세상을 인식함을 의미한다. 단순히 문장으로 풀어나가는 것 보다, 영화 한 편을 실존주의적 키워드로 해석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주체성과 관련하여 소개하고 싶은 영화는 "향수"이다.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는 꽤 흥행한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를 본 이들이 꽤 있을지도 모르겠다. 향수는 잔혹한 소재와 클라이막스의 충격적인 연출로 유명하지만, 마지막 장면에 초점을 맞춰 의미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먼저 영화는 16세기 프랑스에서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악취 나는 곳, 파리에서 시작한다. 여기에는 태어나자마자 생선 내장과 함께 버려져 시끄럽게 울어대는 갓난아기가 한 명 있다. 이 아기가 주인공 장 바티스트 그루누이이다. 그루누이는 어린아이이지만,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루누이에게서 묘한 이질감과 동물적인 공포감을 느낀다. 그루누이에게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체취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원작 소설의 묘사에 따르면, 어린 아기에게 웅당히 나아할 머리 꼭대기에서 나는 달콤한 우유 냄새, 젖냄새, 심지어 땀냄새까지 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은 그루누이가 태생적으로 갖고 태어난 일종의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이며, 누구에게도 욕망되지 않는 존재이다.

그러나 아무 냄새도 갖지 못한 대신, 그에게는 초능력과도 같은 능력이 한 가지 주어졌다. 그는 보통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아주 미세한 향들까지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원하는 향을 완벽하게 조향해 낼 수 있다. 그는 이 능력을 이용해 아름다운 여성의 향을 갖고 싶다는 욕망을 품고, 이 욕망은 곧 여성들의 향을 수집하기 위한 연쇄살인으로 이어지게 된다. 극 중 살인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운 여성들은 그 자체로 여러 사람들의 '욕망의 대상'을 상징한다. 살해당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족과 못 남성들의 애착과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젊은 여성들이며, 이러한 여성들은 곧 젊음, 아름다움, 화려함, 존재성, 본질이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당연한 듯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들은, 그루누이에게는 태생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다. 이 지점에서는 엇나간 그루누이의

탐미적인 수집욕에 조금 공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타인에게 관심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는 감정은 보편적인 욕구이다.

결국, 그루누이는 25명의 여성을 연쇄 살해하고 그들의 향을 조합하여 최고의 향수 '천사의 향기'를 만드는 데에 성공한다. 하지만 이윽고 경찰에 쫓겨 사형대에 오르며, 사형대에 올랐을 때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향기'를 뿌린다. 그리고 향수가 뿌려진 순간, 모든 것이 변한다. 사형을 구경하러 온 수많은 관중은 순수한 욕망에 굴복하여 도덕관념을 모두 잊고 서로를 탐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그루누이가 살해한 소녀의 아버지마저 그루누이 앞에 무릎을 꿇고 기쁨에 겨워 그를 숭배한다. 이제서야 그루누이는 만족할 수 있었을까? 소설에서는 이렇게 묘사된다. "기쁨은 커녕 최소한의 만족감도 느낄 수가 없었다....(중략)...단 한 번만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싶었다. 단 한 번만, 꼭 한 번만이라도 그의 진짜 모습을 그대로 인정받고 싶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했지만, 그는 아무 만족도 얻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루누이는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가 모닥불 한가운데서 천사의 향기를 남김없이 흩뿌린다. 향기를 맡은 행인들은 환희에 가득 차 그루누이에게 모여들고, 곧 그에게 달려들어 흔적도 없이 먹어 치워버린다. 갑작스러운 충동에 식인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뒤의 서술은 그루누이의 감정과는 완전히 대조된다. "마음이 날아갈 듯이 가벼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수줍은 아가씨 같이 달콤한 행복의 빛이 떠올랐다. (중략) 이상할 정도로 당당한 기분이었다. 그들이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이다."

영화에서 다뤄지고 있는 욕망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종류의 인물이 필요하다. 욕망의 주체와 욕망의 객체이다. 한 개인은 욕망의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가 될 수 있고, 자신이 욕망의 주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이 타인의 욕망의 객체라는 것을 인식할 수도 있다. 이 상황을 실존주의에서는 대자존재, 대타존재라는 용어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대자존재는 스스로가 세상을 의식하는 존재로서 자신을 의식하는 일면을, 대타존재는 타인의 세계에서 나 자신이 타인의 객체로 인지되는 것을 인식하는 일면을 말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대타존재이자(수치심, 자부심),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대타존재이기도 하다. 대타존재로서의 타인은 그 존재만으로 내 의지, 자유에 반하여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존재보다 그들을 위한 존재가 되기를 강요한다. 영화에서 그루누이는 완전한 향수를 얻는다는 궁극적인 목표에는 도달하였지만, 그가 추구하였던 목표는 타인의 객체로서 성취하고자 한 목표였으며, 주체적이며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데 결국 실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존주의와 YOLO의 토대를 설명하기 위해 조금 돌아왔다. YOLO족은 타인의 시선, 가치가 아닌 자신의 주관적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고, 현재에 집중한다. 소유보다는 체험을 통해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재창조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실천적 실존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YOLO족의 행보에서 주목할 점은 YOLO가 일시적인 유행이나 마케팅 전략의 일환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종교와 가족주의가 점차 해체되고 절대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는 의미를 잃어가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본주의는 젊은이들에게 존재적 가치를 담보하거나 뚜렷한 해답을 제시해주지 못한다. 젊은 세대가 신도, 국가도, 가족도 아닌 자기 자신을 주체적 결정자로 선택한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앞으로 마주하게 될 세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원화되는 개인과 복잡해지는 사회를 다뤄야 할 것이다. 더욱 정교하고 개인화된 분석을 고민해 볼 시점이다.

지극히 주관적인 국회인턴 체험기



윤우영 (학부 10학번)

- i. 비오는 오후 자취방에서 나 홀로 음악 듣기.
- ii. 토요일 저녁 마음 맞는 친구들과 맥주 한 잔.
- iii. 가상화폐를 주제로 학회원들과 열띤 논쟁 벌이기.
- iv. 회사에서 팀원들과 호흡을 맞춰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
- v. 광장에 촛불로 서기.

언뜻 보면 제각기 떠드는 다섯 문장은 사실 '골방에서 광장으로', '개인에서 집단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갖고 있다. 지극히 주관적이게도 다섯 문장은 나를 행복감으로 몰아넣고 가슴 뛰게 하는 일들이기도 하다. 물론 늘 서술된 모양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토요일 저녁 장염에 걸리기도 하고, 모임이 파투나기도 하며, 회사에서 안 맞는 사람과 뺄려버리기도 할 것이다. 적어도 자의반 타의반 학교라는 울타리에 계속 한 발 걸치고 있다 보니 이 중 무엇을 할 것인지 적절한 제약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

'골방에 머물 것인지 광장으로 나아갈 것인지', '개인을 위한 것인지 집단을 위한 것인지'와 같은 고민은 소년기의 중요한 화두였다. 세상일 무자르듯 되지 않는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 머릿속에서 세상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보고 수 백 번 혁명을 일으켜보고는 했다. 애석하게도 소년기의 끄트머리에 서고 보니, 그러니까 취직 전선에 서고 보니 이상주의자에 대한 찬사와 박수가 더 이상 거짓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광장에 나아가 집단을 위해 일하는 것을 편의상 이상주의자의 일이라 하자면, 그게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닐 것임을 깨닫게 된 셈이다. 막연하게는 내 삶을 지탱하는 수많은 손과 발을 떠올릴 때 느끼는 일종의 부채감으로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주기 위한 삶을 살고 싶었다. 그러고 보면 국회에 인턴을 지원하게 된 것은 절반은 필연이었다.

운이 좋게도 일을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통령 선거운동을 경험하게 되었다. 선거는 유권자 입장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축제이지만, 정당의 입장에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피말리는 인정투쟁이다. 축제와 투쟁 사이 어느 언저리를 뛰어다니면서 수박 겉핥기식이었다. 그러나 일정·정책·홍보·유세·SNS 등을 맡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선거가 당선이라는 목표를 위한 거대한 종합예술의 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두 차례 질의서를 작성한 것도 기억에 남는 일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와 같은 권력기관의 수장에게 국회의원을 매개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꽤 짜릿한 일이었다.

6월 7일 김동연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맡았던 질의서 내용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것이었다. 저출산·고령화로 나타나는 인구구조 변화가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국가의 존폐문제'로 직결되기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에만 80조 가까이 예산을 집행했는데,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2006년 1.12명에서 10여년 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방향설정부부터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의서를 작성하였다. 비혼과 만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양육비 부담 경감정책에 더해 청년 고용·주거 비용·교육 문제 등 결혼과 출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최대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하였다. 중장기적으

로는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문화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여성의 경력단절문제 해결을 통해 여성고용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연히 그 다음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 3대 우선과제로 일자리와 4차 산업, 저출산을 선정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기로 하였다. 질의요지가 국가적인 과제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광장에 나아가 집단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6월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맡은 질의의 주제는 역외탈세 근절에 관한 것이었다. 국정농단을 일으킨 최순실과 그 일가의 해외은닉재산이 8,000억원을 넘어 10조원에 달한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일부는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해 자금 세탁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국세청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실제 거주지를 은닉하고, 국제거래 관련 허위자료를 생성하고 외화밀반출·자금세탁·위법증여에 이르기까지 역외탈세의 수법이 점점 복잡 대담해지고 있는데, 국세청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작성하였다. 역외탈세 추적 및 추징을 담당하는 여러 조직 중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만 놓고 보면 2011년 신설된 이후 인력 및 예산에 획기적인 증편이 없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질의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많은 자료들을 찾아 읽어보고 행정부의 담당자분들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사회현상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대안을 고민할 수 있었다. 부족한 식견이지만 행정부에 직면한 한계를 지적하고 인력과 예산 증편이 필요한 곳에는 힘을 실어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행정부의 권력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입법부에 주어진 권한이라는 것이 잘 쓰면 약이 되겠구나 싶었다.

물론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과대망상'이라고 판단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보좌진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아 업무를 대신하는 것에 불과한데 이것이 마치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권위라고 생각하는 순간 독 묻은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다. 짧은 시간 일하면서 내가 국민의 권위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상황에 있음을 잊지 않고자 노력했다.

문재인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국회에 취임 선서 차 방문했을 때 느낀 것이 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그래도 손에 닿을 거리까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 싶은데, 당선 이후 끝없이 이어지는 경호 차량의 행렬을 보면서 이제는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권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 한 장면이었다.

급류에 휩쓸리듯 일을 시작하고 보니 골방과 광장, 개인과 집단 어찌고 해왔던 것이 무의미하다 싶을 정도로 실상은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골방에만 있을 수도 없고, 광장에만 있을 수도 없으며 일신의 안위만 위하는 일도 없고 집단의 이익만 찾는 일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호한 경계 속에서 찾은 것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국회에서의 경험은 나를 재발견하는 시험대였던 셈이다. 세상을 무 자르듯 나누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지 여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배짱이처럼 기획하고, 개미처럼 실무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찌면 이번 경험을 통해 체득한 가장 소중한 언어인지도 모르겠다.

ECO PLUS

1. 동아리 소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축구 동아리 에코플러스는 올해로 창단 18년째를 맞는 동아리로서, 관악의 대표적인 축구동아리 중 하나입니다. 교

내 대회(총장배, 종합체육대회, S-League)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전국 경제학과 축구대회(EFA컵)에서 활약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축구실력을 가진 동아리입니다.

하지만 에코플러스에 경제학부생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에코플러스는 축구를 좋아하는 모든 단과대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동아리입니다. 또한 축구 실력에 따라 사람을 가려서 받지 않습니다. 축구를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하여 망설이지 말고 에코플러스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희 에코플러스의 모토는 '즐거움'입니다. 팀 스포츠로서 팀과 같이 호흡하면서 축구의 즐거움을 함께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습 후, 경기 후에 가지는 모임을 통해서 팀원들 간에 우정을 다짐으로써 팀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소속감을 느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구 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매주 화요일 혹은 목요일에 대운동장 자유개방시간(20:00~22:00)인 2시간 동안 실전 형식의 연습 경기를 진행하며, 금요일 아침 연습을 통해서 기본기를 쌓는 시간을 갖습니다. 에코플러스를 통해 축구의 재미를 알아가는 동시에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동아리라고 하여 남학우들에게만 열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축구를 좋아하거나, 혹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여학우분들이라면 에코플러스는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학우분들은 '매니저'라는 직책을 맡아 팀의 중심으로서 팀을 챙기고, 선수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2. 지도교수님 소개

에코플러스의 지도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경제



학부의 류근관 교수님이십니다. 평소에 테니스를 비롯한 운동에 관심이 많으신 교수님께서는 에코플러스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으로 응원해줍니다.

3. 동아리 활동 소개

(1) 정기 연습 & 아침 연습

매주 화요일 혹은 목요일의 서울대학교 대운동장 자유개방시간인 20:00~22:00에 대운동장에서 정기 연습을 진행합니다. 주로 교내 축구 리그인 S-League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팀과의 연습 경기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연습 경기인 만큼 자유로운 교체를 통해 다양한 선수들이 참여함으로써 경험을 쌓고 정식 경기에서 활용할 다양한 전술을 연습합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기숙사 운동장에서 신입생들을 비롯한 신입회원을 위한 기본기 훈련을 진행합니다. 드리블, 패스, 슛, 트래핑 등 평소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반복 훈련을 통하여 미흡한 기본기를 보완해 나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2) S-League



현재 에코플러스는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리그인 S-League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다른 팀과 경기를 치루고, 그 결과에 따라 승점이 부여되어 순위에 반영됩니다.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S-League는 2학기 말, 상위 6개의 팀들간에 펼쳐지는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최종 우승팀을 가릅니다.

(3) 서울대학교 총장배/종합체육대회

에코플러스는 1학기의 서울대학교 총장배 축구 부문과 2학기의 종합체육대회 축구 부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S-League에 참여



하고 있는 팀들을 비롯한 많은 팀들이 참여하는 대회이고, 16강부터는 토너먼트로 진행되어 치열한 우승경탈전이 벌어집니다. 역대 최고 성적은 4강 진출이었지만, 언제나 우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전국 경제학부 축구대회(EFA컵)

전국 경제학부 축구대회는 매년 여름 방학이 끝나가는 8월 3~4주에, 서울에 위치한 15여개 대학교의 경제학부 축구 동아리들 간에 이루어지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4개 조로 나뉘어 예선 경기를 치루고, 8강부터 토너먼트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에코플러스는 매년 이 대회에 참여하여 좋은 성적을 얻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다른 대학교의 경제학부 축구 동아리와 친분을 쌓아 기회가 될 때마다 교류전의 형태로 연습 경기도 진행합니다.

(5) 홈커밍데이

매년 졸업한 OB회원들을 초대하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홈커밍데이 행사에서는 OB·YB전과 뒤풀이 모임을 가집니다. 친목도 모를 위한 OB·YB전에서는 OB와 YB간에 팀을 이루어 축구 경기를 진행합니다. 이후 뒤풀이 모임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는 평소에 면식이 없던 OB 선배님들과의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4. 수상실적

- S-League 우승(2014)
- S-League 플레이오프 준우승(2016)
- 전국경제학부 축구대회 준우승(2011)
- 전국경제학부 축구대회 준우승(2012)
- 전국경제학부 축구대회 우승(2013)
- 전국경제학부 축구대회 우승(2014)

(10면에서 이어집니다.)

이은주 (박사과정)

국제학술대회 "17th SAET Conference on Current Trends in Economics" 참가 및 논문 "Axiomatic Characterizations of the Folk Rule for Minimum Cost Spanning Tree Problems with Multiple Sources" 발표

원혜진 (박사과정)

국제학술대회 "Summer Academy on Central and Eastern Europe: Family in Transition: Context, Values, and Choice" 참가 및 논문 "The Multigenerational Transmission and the Socioeconomic Impact of Women's Education" 발표

Context, Values, and Choice" 참가 및 논문 "The Multigenerational Transmission and the Socioeconomic Impact of Women's Education" 발표

홍현우 (박사과정)

국제학술대회 "The East Asian Game Theory Conference 2017" 참가 및 논문 "Credit Constraints, Utilitarian Market Failure, and Social Enterprises" 발표

정수정 (박사과정)

국제학술대회 "The East Asian Game Theory Conference 2017" 참가 및 논문 "Revenue Sharing on Hierarchies" 발표

오명하 (석사과정)

국제학술대회 "Singapore Economic Review Conference 2017" 참가 및 논문 "Knowledge Spillovers and Patent Citations: Trends in Geographic Localization, 1976~2015" 발표

BK21플러스 사업단 소식

우리 경제학부는 2013년 하반기부터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석·박사 급 창의인재 양성(BRAIN KOREA 21 PLUS)의 인문사회분야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경제전문가 양성 교육연구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2013년9월1일~2015년8월31일)의 중간평가 결과 사회과학분야(경제/경영, 전국단위) 최우수 사업단으로 평가 받았다.

BK21플러스사업단은 2017년도 상반기에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 ▶ BK21플러스/김태성기념세미나 13회
- ▶ BK21플러스/IER Public Seminar 6회
- ▶ BK21플러스 Brown Bag lunch 세미나 6회
- ▶ BK21플러스 공동주관 학술행사 4회
- ▶ 응용계량경제학 워크숍 7회
- ▶ 실험사회과학모임 4회
- ▶ 국제학술대회참가경비지원 12회

BK21플러스/김태성 기념세미나

장유순 (Indiana University)

Do Shocks to Income Distribution Permanently Change Consumption Distribution? Time Series of Cross-Sectional Distributions with Common Stochastic Trends

Wolfgang Pesendorfer (Princeton University)

Random Evolving Lotteries and Preference for Information

Hiro Ito (Portland State University)

A Key Currency View of Global Imbalances

Christopher Paik (New York University Abu Dhabi)

Legacy of Colonial Expansion on Centralization and Development: Evidence from Thailand

홍지희 (IMF)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and Bank Credit Supply

Michael Graber (University College London)

Income Dynamics Over the Business Cycle

Jan Fidrmuc (University of Brunel)

How Persistent Is Social Capital?

김경민 (University of Miami)

Consumer Search and Price Competition

Wan Kam-Ming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Treatment of Outliers: Managerial Incentives and Corporate Innovation

강가람 (Carnegie Mellon University)

Winning by Default: Why is There So Little Competition in Government Procurement?

Olivier Bochet (New York University–Abu Dhabi)

Prevalence of Truthtelling and Implementation

김현철 (Cornell University)

Knowing Is Not Half the Battle: Impacts of the National Health Screening Program in Korea

이정운 (Royal Holloway, University of London)

Misspecification Testing in Spatial Autoregressive Models

BK21플러스/IER Public Lecture Series

전현배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기업동학과 서비스업 생산성

김대일,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4차 산업혁명의 고용효과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한국의 경제성장과 중진국 함정

김세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Working Capital Theory of Economic Growth

박준용 (Indiana University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Econometric Analysis of Functional Dynamics

김영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Money, Unit of Account, and Nominal Rigidity

BK21플러스사업단 Brown Bag lunch 세미나

강지혜 (서울대 경제학부)

Wage Dynamics of Workers with Temporary Job Experience : Wage Growth by Type of Job Transition

최봉준 (서울대 경제학부)

Matching with Searching

김혜진 (서울대 경제학부)

Can Geographically Targeted Wage Subsidies Protect a City from a Local Economic Shock?

박지혜 (서울대 경제학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도 이용자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서기쁨 (서울대 경제학부)

Ranking the Methods of Performance Evaluation on Human Capital

홍지은 (서울대 경제학부)

The Demanding for Schooling and Community Effect: Evidence from Migrants

BK21플러스사업단 공동주관 세미나

학술대회

[경제연구소, 본배정의연구센터, BK21plus 공동주최 Workshop]

T.S. Kim Bidecennial Memorial Workshop: Theoretical and Applied Economics

[본배정의연구센터, BK21plus 공동주최 Workshop]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성과와 시장경제

[경제학부, 경제연구소, BK21plus 공동주최 Workshop]

SURE International Workshop

특별강연

[실험사회과학센터, BK21plus 공동주최 특별강연]

Dongkyu Chang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Dynamic Bargaining and Coase Conjecture

응용계량경제학 워크숍

유인정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How Does Job-Protected Maternity Leave Affect Mothers' Employment? (2008, JLE)

김세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Better Schools, Less Crime? (QJE, 2011)

배한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Tabacco Control Campaign in Uruguay (JHE, 1015)

김상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Estimating Voter Support by Lowess Smoothing

최윤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Performance Change of Business Groups in China and the Arguments Explain the Phenomenon

심재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Economic Uncertainty, Parental Selection and Children's Educational Outcomes (JPE, 2017)

도민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Earthquakes, Religion, and Transition to Self-Government in Italian Cities (QJE, 2016)

실험사회과학모임

신진욱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A Better Method to Elicit Risk and Time Preference than MPL

Subhasish Chowdhury (University of East Anglia, UK)

Affirmative Action Policies and Sabotage Behavior in Promotional Tournaments: An Experiment

이웅익, 박벼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Probability Weighting and Cognitive Ability, Conveniently Upset: Avoiding Altruism by Distorting Beliefs about Others' Altruism

심승규 (University of Tokyo), 윤성훈 (Kais)

Can Prosocial Behaviors Be Nurtured? Experimental Evidence from the Scholarship Program Reform by Korea University, Reciprocal Behavior in Online Reputation Systems

BK21플러스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최봉준 (석사과정)

국제학술대회 "2017 Asian Meeting of the Econometric Society" 참가 및 논문 "Matching with Searching" 발표

송신애 (박사과정)

국제학술대회 "Second World Congress of Comparative Economics" 참가 및 논문 "Analysis of Equity on Healthcare Use with Double-Hurdle Model: Using Korean Health Panel Data" 발표

김다울 (박사과정)

국제학술대회 "Second World Congress of Comparative Economics" 참가 및 논문 "Determinants of Economic Adaption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발표

홍지은 (박사과정)

국제학술대회 "Second World Congress of Comparative Economics" 참가 및 논문 "The Demand for Schooling and Community Effect: Evidence from Indonesia" 발표

이종민 (박사과정)

국제학술대회 "Second World Congress of Comparative Economics" 참가 및 논문 "Political Determinants of North Korea's Industrial Resource Allocation" 발표

김민정 (박사 후 연구원)

국제학술대회 "Second World Congress of Comparative Economics" 참가 및 논문 "Shortage Economy and Managerial Autonomy: Evidence from North Korean Refugees" 발표

윤기용 (석사과정)

국제학술대회 "2017 Conference on Economic Design" 참가 및 논문 "Characterizations of the Probabilistic Serial Rule for the Simple Random Assignment Problem" 발표

장 학 금**장학금 수혜 현황**

2017년도 1학기 교내 장학금을 통해 경제학부 학부생 336명, 대학원생 70명이 수혜를 받았다. 기타 교외장학금을 통해서도 학부생 318명, 대학원생 19명이 수혜를 받았다.

2017학년도 향상장학금 수여식

상대향상 재단을 통해 40명의 학부생이 장학금을 전달받았으며, 2017년 2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20명의 장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향상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교무 및 학생활동**제71회 전기 학위수여식**

서울대학교 제71회 전기 학위수여식이 2월 24일(금) 14시에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경제학부는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박사 3명, 석사 32명, 학사 146명(최우등 67명, 우등 60명)을 배출하였다.

2017학년도 경제학부 대학원 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7년도 대학원 후기모집을 실시했다. 석사과정은 전공필답고사 성적으로 1차 선발한 후,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최종 21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박사과정은 석사과정에서의 연구 성과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바탕으로 서류평가와 면접 및 구술고사를 통해 총 11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대학원 모집인원 변경안 2019년부터 실시

경제학부 대학원은 2018년도 전기부터 <석사, 박사통합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2019년도 전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연기했다. 2018년도 대학원 모집에서는 예년과 같이 석사, 박사, 석박 통합과정을 모두 선발하는 한편, 예년과 달리 전기에 석사 및 석박통합과정생만을 모집하며, 후기에는 박사과정생을 모집한다. 이에 2018년 전기에는 석사 63명 및 석박통합과정 2명을 선발하며, 후기에는 박사과정 1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017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2017년도 하계 계절학기가 6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되었다. 경제학부는 학생들의 하계계절학기 개설희망교과목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학개론', '경제원론 1, 2',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사', '경제통계학', '정치경제학입문', '경제수학', '계량경제학', '국제경제론'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스승의 날 행사 개최

경제학부는 5월 15일부터 26일까지를 스승의 날 주간으로 잡고 경제학부 서포터즈와 함께 스승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우리 학부는 약 1000여명의 학생과 38명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어 평소 자유로운 사제간의 교류가 힘들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 같은 행사를 가졌다. 참가한 학생들은 담당 교수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가 유지되기를 희망하였다.

경제학부 체육대회 개최

2017년 5월 12일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학생 및 교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학부 신입생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체육대회는 신입생들의 친목향상 및 학부 소속감 고취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고, 체육대회가 끝난 후에는 글로벌 하우스에서 교수-학생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경제학부 대학원 풋살대회 개최

2017년 3월 28일 서울대학교 기숙사 삼거리 경기장에서 '경제학부 대학원 풋살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대학원 연구실 간 친목도모와 교류 증진을 위해 개최되었고 자유경제연구실, 국제경제연구실, 계량경제연구실, 이론경제연구실, 정치경제연구실, 금융경제연구실이 참여하였다.

국제화 추진 현황**2017학년도 1학기 영어강의개설목록**

담당교수	교과목명
이 군	Economics of Catch-up
Yves Gueron	Microeconomics, Exercises in Economics 1
Mahyar Adibi	International Economics
정호진	Principles of Economics 2

2017학년도 외국인특별전형 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7년도 후기 외국인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서류평가를 통해 3명의 석사과정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이번 외국인특별전형은 총 32명의 외국인 학생이 지원한 가운데 한국(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중국, 벨라루스 학생이 선발되었다.

버클리대 경제학과 방문수학 프로그램(BESAP) 학생선발

경제학부는 2017년 3월 선발전형을 실시하여 BESAP 참가자로 1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이 학생은 2017년 2학기에 파견될 예정이다. BESAP는 미국 명문대학인 캘리포니아 버클리대(UC Berkeley)와 경제학부가 협약을 맺어, 학부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버클리대 경제학과의 정규과정에 방문 수학하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제학부 홈페이지 개편

경제학부는 2017년 4월부터 새로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보안상의 취약점 개선과 모바일 환경 최적화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새로운 홈페이지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적으로 영문 홈페이지라는 점이다. 그리고 새 홈페이지에는 경제학부에서 개최되는 모든 세미나 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캘린더 기능을 추가하였다. 예전 홈페이지는 <http://oldecon.snu.ac.kr>를 도메인으로 하며,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될 예정이다.

서울대 발전기금 출연 현황

(가나다 순)

- 경제학과 87학번 동기회 1천만원(위임)
- 경제학부 교수 27명 2억 1천 2백만원(위임)
- 김인준(명예교수) 1천만원(위임)
- 김인준(명예교수) 2천만원(장학)
- 양호승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화우) 1천만원(위임)
- 이필상(초빙교수) 2백 5십만원(장학)
- 최중두(학부모) 1백만원(위임)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SP) 안내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는 1961년도에 설립되어 56년에 이르는 전통과 역사를 지닌 연구소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및 경제·경영학 관련 전공 교수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금융위기를 보면서 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학부와 더불어 세계 속에서의 한국경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1년 3월부터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dvanced Strategy Program for Global Economy : ASP)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제34기) 입학생을 모집하는 본 과정은 이미 1000명 이상의 동문을 배출한 최고 수준의 교과과정과 강사진을 갖춘 산학협동과정으로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화된 디지털경제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방향 수립을

위한 지식 습득과 능력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들로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비롯하여, 국가전략을 결정하는 책임 있는 당국자, 금융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은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욱이 본 과정을 통하여 국가정책방향의 주요 의제들이 논의되는 토론의 장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는 데 주역을 맡으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ASP의 특전

1. **과정 수료자에 대한 이수증 수여:** 6개월간에 걸친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2. **동창회 조직:** 본 과정 이수자들 간의 상호교류와 학교와의 연계를 위하여 동창회를 구성하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 소속됩니다.
3. **정기간행물 및 시설 등의 이용:** 수강자들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경제논집, Seoul Journal of Economics 등)과 자료들을 증정 받으며, 본 연구소의 각종 시설(도서관, 세미나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각종 세미나 및 행사 참여:** 본 과정 수강자들은 경제연구소 및 ASP총동창회가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및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연구소는 주례발표회(학기 중, 매주 수요일 12시), SJE 세미나 및 저명교수 초청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으며, ASP총동창회에서는 조찬세미나, 하계 해외연수 등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ASP 입학안내

- ① **모집인원:** 40명 내외
- ② **입학자격:** 1) 대기업의 임원 2) 중소기업의 대표
3) 주요기관의 기관장급 간부 4) 금융기관의 간부
5) 입법·사법·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6)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
- ③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④ **모집횟수:** 연2회(봄학기 모집: 1~2월, 가을학기 모집: 7~8월)
- ⑤ **이수요건:** 강의 출석률이 70% 이상일 것
- ⑥ **모집안내:** - 전화: (02)880-5432 - 팩스: (02)888-4454
- 이메일: asp@snu.ac.kr - 홈페이지: http://ier.snu.ac.kr
- 주소: 우)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16동 523호)

ASP 33기 회원명단

- | | |
|----------------------------|--------------------------------|
| 1. 강석산 (주)전상장교회 대표이사 | 14. 이기탁 한국전력공사 처장(인천전력지사장) |
| 2. 고태순 NH농협캐피탈 대표이사 | 15. 이상봉 삼성화재 상무(자보전략팀장) |
| 3. 권오복 (주)진영아이앤씨 대표이사 | 16. 이준형 이베스트투자증권 상무(파생상품운용본부장) |
| 4. 권원택 SK하이닉스 상무 | 17. 정재홍 중앙일보 사무국장 |
| 5. 김남일 KB국민은행 중소기업금융그룹 대표 | 18. 정희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무 |
| 6. 김대환 삼성생명 전무(경영지원실장) | 19. 조경엽 KB금융지주 전무(경영연구소장) |
| 7. 김상우 (주)디노트크리에이티브 대표이사 | 20. 조재희 신한은행 상무(리스크관리그룹장) |
| 8. 김양수 한국감정원 적정성조사본부장 | 21. 조현진 중앙감정평가법인 총무이사 |
| 9. 김영전 금융보안원 총무부장 | 22. 주광윤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장 |
| 10. 김환용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장 | 23. 최동현 구일환경주식회사 대표이사 |
| 11. 백승주 기획재정부 국장 | 24. 하홍식 GS칼텍스 상무(수도권소매사업본부장) |
| 12. 윤상훈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 25. 홍기섭 KBS한국방송공사 보도본부장 |
| 13. 이계성 KB국민은행 서초지역영업그룹 대표 | |



〈ASP 33기 해외세미나 기념사진〉

인적사항 수정이 필요한 동문 또는 알리고 싶은 소식 있는 동문께서는 소식지 편집조교에게 이메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적사항 수정의 경우 새 정보로 변경하고, 알리고 싶은 소식의 경우 다음호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출판된 경제학부 소식지는 경제학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